

사람 이름 붙이기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치 근 제주도에 화가 李仲燮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다. 서울에도 울곡로, 퇴계로, 세종로 등 인명을 붙인 거리가 의외로 많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빅토리아거리, 러시아의 푸시킨거리, 중국의 中山대로 등이 그 예이다.

국가나 해당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거리·지명에 붙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도가 지나치고 대단히 정치적이다. 북한은 행정 구역, 교육 기관, 건물, 단체 등의 명칭에 광범위하게 사람 이름을 붙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국이나 외국의 경우처럼 과거 인물이 아니라 주로 항일 빨치산이나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일반 노동자들의 이름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人名 붙이기'는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최초로 사람 이름이 붙은 것은 1946년 10월 1일 문을 연 김일성종합대학이

다. 당시 김일성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북한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가 당내에서 확고한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1946년말 시점에 벌써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위가 확고했다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수적으로는 김일성과 그 일가의 이름을 붙인 경우가 가장 많다. 물론, 반세기 동안 북한의 최고 통치자였던 김일성의 이름을 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은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시작으로 1952년 4월 15일 설립된 고급중학교를 김일성고급중학교라고 명명하였다. 이외에 김일성의 이름이 붙은 교육 기관으로는 김일성고등물리학교, 김일성고등농업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방송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정치대학 등이 있다.

김일성 이름 붙이기는 교육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1954년에는 평양시의 중앙광장을 김일성광장이라고 명명했고, 1974년에는 김일성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북한은 김

일성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선전하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는 희귀한 사례이다.

김일성의 이름은 심지어 꽃에도 붙어 있다. 김일성화가 그것이다. 이 꽃은 1964년 인도네시아의 한 식물 학자가 새로 만들어낸 난초과 식물로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수카르노가 김일성의 이름을 따 김일성화라고 명명하였다.

이외에도 김일성경기장,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등 건물, 단체 등의 명칭에 폭 넓게 김일성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의외인 것은 김일성의 본명인 김성주를 붙인 사례들이다. 북한은 올해 7월 4일에 1947년 김일성의 첫 방문일을 기려 평양대동문인민학교를 김일성의 본명을 따 김성주인민학교로 개명했다. 김성주란 이름이 붙은 것은 1976년 9월 9일 양강도 후창군에 세워진 김성주학생소년궁전이 처음이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본명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주장과 달리 70년대에 북한은 이미 김성주란 이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이름은 국가 최고 훈장이나 상에도 붙어 있다. 김일성훈장, 김일성상금메달, 김일성청년명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이름을 해외에도 '수출'하였다. 김일성의 이름이 붙은 거리·건물들

이 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450 곳의 거리, 건물 등에 김일성의 이름이 붙어 있다. 450 개 가운데는 김일성서점, 김일성학급, 김일성유치원,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김일성도서실, 김일성대원수거리 등 종류가 다양하게 망라돼 있다. 김일성 이름을 딴 건물·거리 등은 대부분 70~80년대 북한과 비교적 가까웠던 가나,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비동맹권 국가들에 소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민족까지도 아예 김일성민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앞으로 국호까지도 김일성국가로 바꿀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일성의 본처이자 항일 빨치산 동료였던 김정숙도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74년 김정숙따라배우기운동을 시발로 추진된 북한의 김정숙 우상화 작업은 김정일이 권력 전면에 등장한 1980년 노동당 6차당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김정숙의 이름을 딴 지명·기관·시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1년 8월 혜산교원대학을 김정숙사범대학으로, 9월 양강도 신파군을 김정숙군으로 개칭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신파군은 김정숙이 30년대 빨치산으로 활동할 때 조국광복회 지부를 만들기 위해 잠입해 활동했던 곳이다. 이외에도 김정숙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김정숙여자고등중학교, 김정숙해군대학, 김정숙교원대학, 김정숙탁아소, 김정숙제1고등중학교, 김정숙휴양소(금강산), 김정숙요양소 등이 있다.

김일성 부모의 이름을 딴 명칭도 70년대 김일성유일사상체제 확립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46년에 설립된 평양교원대학을 1975년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이름을 따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개칭했고, 1976년에는 양강도 후창군에 군인민병원을 세우고 김형직인민병원이라고 이름 붙였다. 김형직이 만주에서 순천의원을 운영하며 활동했기 때문에 인민병원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1990년에는 양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바꾸었다.

또 1972년 3월에 남포혁명학원이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이름을 따 강반석혁명학원으로 개명되었다. 이 학원은 직업적인 여성 혁명가, 정치 일꾼을 키우는 간부 양성 기관이다. 지난해 2월에는 강반석탁아소가 평양에 새로 건립되었다. 이외에 강반석정치학원이 있다.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도 비중있는 인물이다. 북한은 1990년 6월 양강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개칭하였다. 1930년 김형권이 '무장 소조'를 이끌고 풍산군을 습격한 인연 때문이다. 김형권사범대학, 김형권군관학교도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평양에 있는 김철주사범대학은 평양사범대학에서 개명된 것으로

반일 운동을 하다 1935년에 사망한 김일성의 동생 이름을 딴 것이다. 김철주군관학교도 같은 경우이다.

김정일의 이름을 딴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김정일의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그의 생일이 김일성의 생일과 함께 국가 명절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 그 뒤를 이어 북한은 1988년에 김정일이 출생했다고 하는 백두산소백수골 귀틀집 뒤에 있는 장수봉을 정일봉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정일봉고등중학교도 같은 경우이다.

북한에는 김일성화외에 김정일화도 존재한다. 김정일화는 1988년 2월 김정일의 46회 생일 때부터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불멸의 꽃으로도 불린다. 북한은 일본의 원에 학자가 남미가 원산지인 베고니아 뿌리로 20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 김정일에 바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것은 회령고등중학교를 개칭한 김기송고등중학교이다. 김기송은 김정숙의 동생으로 항일아동단에서 활동하다 1933년 12월 28일 사망했다. 당시 나이가 12살에 불과했다.

김일성 일가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붙은 것이 30년대 만주 항일 빨치산 시절 김일성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 노동당 창건 30주년인 1975년에 건설한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두드러진 인물이 김

책이다. 30년대 북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그는 해방 후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 북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북한 정권 수립의 1등 공신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갑자기 사망한 후 그의 집무실에서 나온 금고 안에는 오직 김책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김일성의 애정은 각별하였다.

6·25전쟁 때 군사위원회 위원 겸 전선사령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김책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31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직후인 2월 19일 북한은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성진시를 김책시로, 학생군을 김책군으로 고쳤다. 또 김책제철소(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책세멘트연합기업소, 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공업대학), 김책항, 김책만 등 도시와 공장, 학교, 항만 등을 그의 이름을 따 개명하였다. 이외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김책공군대학, 김책체육학원 등이 있다. 현재 북한 노동당 간부 담당 비서인 김국태가 그의 아들이다.

6·25전쟁 때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다가 폭격으로 사망한 강건의 경우에는 1968년 고향인 사리원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앞의 거리가 강건거리라고 명명되었다. 강건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도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김책, 강건 외에도 대학과 군관 학교에는 항일 빨치산 출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곳

이 많다. 차광수대학(신의주제1사범대학을 개칭), 오중흡대학, 안길대학, 최현군관학교, 오백룡군관학교, 리계순군관학교, 리광군관학교, 마동희대학(청진교원대학), 최희숙대학(함흥제1교원대학), 최희숙군관학교, 최철구군관학교, 유경수군관학교, 장철구상업대학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리계순, 최희숙, 장철구가 여성이다.

우리에게 아오지탄광으로 유명한 함경북도 은덕군 아오지리의 경우도 1981년 6월부터 학송리로 개명되었다. 30년대 항일 빨치산에서 활동하다 1942년에 사망한 김학송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항일 빨치산들의 이름이 지명·학교·거리에 널리 붙여진 것과는 달리 정통 관료 출신의 이름이 붙여진 경우는 많지 않다. 관료 출신으로는 정준택이 돋보인다. 그는 광신기사 출신으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기획부장을 시작으로 국가계획위원장, 경공업위원회 위원장, 정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한 북한의 대표적 경제 관료였다. 북한은 1973년 그가 사망하자 그의 업적을 높이 사 원산경제대학을 정준택경제대학으로 개명하였다.

북한은 또한 조총련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1995년 총련 결성 40돌을 맞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 의장의 이름을 따 평양경공업대학을 한덕수경공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학자의 이름을 붙인 경우로는 계몽상대학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북한은 1967년 계응상이 사망하자 잠업과 생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사리원농업대학을 계응상대학으로 개명하였다.

또 6·25전쟁 때 사망한 병사들의 이름을 따 명명한 고지나 부대도 상당수 있다. 그 가운데 강원도 금강군에 있는 1211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중국군 병사 황계광을 기리기 위해 이 고지 인근의 학교를 황계광고등중학교로 명명하고 북한·중국간 친선의 상징적 장소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일반 노동자의 이름을 따 '김덕수 동무가 일하는 사업소', '김용경 동무가 일하는 사업소' 등 색다르게 이름을 붙인 경우도 눈에 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남쪽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다. 김종태가 대표적이다.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종태가 1968년 7월 '통일혁명당사건'으로 1969년 7월 10일 사형되자 북한은 평양전기기관차공장을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현재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으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사범대학으로 개명하였다.

1993년 3월 19일 이인모가 송환되자 북한은 그가 다녔던 양강도 김형권군의 파발국민학교를 이인모인민학교로 개칭하였다.

해외 인물로는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윤이상을 들 수 있다. 재독 작곡가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 본부 의장을 맡기도 했던 윤

이상은 이미 80년대부터 북한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그의 이름을 딴 윤이상음악연구소를 1984년에 만들었으며, 1992년에는 그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양 중심 거리에 건립된 음악당을 윤이상음악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윤이상 사망 후인 1996년에는 윤이상음악당 안에 윤이상박물관이 꾸며졌다.

북한은 80년대부터 조총련이나 해외 인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그들이 북한에 투자해 지은 건물들에 지원자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평양에 있는 김만유병원이 대표적이다. 1986년에 개원된 이 병원은 북한에서 가장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재일 조총련 상공인 김만유의 투자로 지어진 것이다.

북한의 단체, 지명, 건물 등에 대한 '인명 붙이기'는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혁명성'과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북한의 '인명 붙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김정일이 공식 승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면 김정일의 이름이 붙는 지명이나 단체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統**